

제8강 - 양생주① : 소 잡는 데에서 사는 법을 배우다

(1교시)

◆ 포정해우

※ 학습목표

포정해우의 일화를 통해 양생에 대해 알아본다.

▲ ‘양생(養生)’과 ‘양형(養形)’

- 양형

“숨을 깊이 내쉬고 마시는 것, 묵은 것을 토해내고 새로운 것을 들이는 것, 곰이 두 발로 서듯 몸을 똑바로 세우고 새가 날아오르려 할 때처럼 몸을 쭉 펴는 것은 오래 살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것은 도인술을 닦는 선비(導引之士), 형체를 기르는 사람(養形之人), 팽조(彭祖)같이 장수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것이다.”(「각의」)

* 양형은 신체단련으로 형체를 기르는 것을 뜻한다.

- 양생

장자에게 삶, 생(生)은 개체가 갖는 생물학적 생명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으로 신체의 생명활동 뿐 아니라 정신적 활동, 사회문화적인 활동, 정치적 활동, 인간관계 등을 아우른다. 양생은 오래 산다거나 하는 양형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 포정해우(庖丁解牛)의 일화

“포정(庖丁)이 문혜군(文惠君)을 위하여 소를 해체하였다. 손을 갖다대고 어깨를 기울이고 발로 밟고 무릎으로 누르는 데 따라 (소의 가죽과 뼈가 서로 떨어져 나가면서) 획획하고 울렸으며, 칼을 획획 움직이면 음률에 맞지 않음이 없었다. 상림(桑林)의 춤에 부합하고, 경수(經首)의 음절에 들어맞았다. 문혜군이 말하였다. ‘아아, 훌륭하도다! 기술(技)이 이런 경지에 까지 이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포정이 칼을 내려놓고 대답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도(道)입니다. 그것은 기술(技)에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소를 해체할 때에는 보이는 것이 온전한 소(全牛)가 아닌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자 온전한 소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신(神)으로써 소와 만나지, 눈으로써 소를 보지 않습니다. 감각기관의 지각작용이 멈추고 신(神)이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소의 자연적 결(天理)을 따라 큰 틈새를 치고 큰 구멍에서 칼을 움직이니, 소의 본래 모습(固然)을 따른 것입니다. 경락이 서로 이어진 곳, 뼈와 살과 힘줄이 엉킨 곳에서도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거늘, 하물며 큰 뼈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좋은 요리사는 해마다 칼을 바꾸니, 자르기(割)

때문입니다. 보통의 요리사는 달마다 칼을 바꾸니, 쪼개기(折) 때문입니다. 지금 제 칼은 19년이나 되었고 이 칼로 해체한 소가 수천 마리가 되는데도 칼날은 숫돌에서 막 새로 갈아낸 듯합니다. 소의 마디에는 틈새가 있고,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가 없는 것을 틈 사이로 집어넣으니, 널찍널찍하여 칼을 놀리는 데 반드시 여유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19년이나 되었는데도 칼날이 숫돌에서 막 새로 갈아낸 듯 합니다. 그렇지만 매년 근육과 뼈가 뒤엎혀 있는 곳에 이를 때면 저는 다루기 어려움을 알고 두려운 듯이 조심합니다. 시선이 정지되고 행동이 느려지며 칼을 놀리는 것이 매우 미세해지면, 마치 흙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특하고 해체됩니다. 그제야 저는 칼을 들고 일어서서 사방을 돌아보고, 잠시 머뭇거리다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칼을 잘 닦아서 넣습니다.’ 문혜군이 말했다. ‘훌륭하도다! 나는 포정의 말을 듣고, 양생(養生)에 대해 터득하였노라!’”

- * 문혜군 : 칭호로 보아 한 나라의 군주로 보임. 실존여부는 알 수 없음
- * 상림 : 은나라 탕임금때 만들어진 춤곡
- * 경수 : 요임금이 상제에게 제사지내면서 연주하기 위해 만든 함지(咸池)의 한 악장

▲ 리듬과 에너지의 조절로 하나가 되다

천한 백정이 소를 잡는 모습을 국가적인 행사에서 연주되는 음악이나 춤에 비유하는 것은 장자 특유의 표현이다. 포정은 소를 잡는 데 음악이나 춤처럼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는 놀라운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리듬이라는 것은 이질적인 대상이 만나 공통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어떤 움직임이 패턴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것이다.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다루는 대상과 리듬을 잘 형성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또한 포정은 자기가 소 잡는 솜씨를 예술적인 경지로까지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도를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자는 도는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道通爲一). 포정이 추구한 것도 작업을 통해 소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소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포정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를, 소를 해체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고 힘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 神

소를 눈으로만 보던 포정은 신(神)으로 소와 만나게 된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대상에 대한 사전정보를 습득을 하게 되는 것이 시각이다. 이 시각만으로는 대상을 이해할 수 없다. 신(神)은 정신mind, 혹은 영혼spirit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장자에게 신은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닌, 몸과 마음을 통틀어서 쓸 수 있는 개념이다. 신은 우리가 가진 에너지, 기(氣) 중에서도 가장 작용이 뛰어난 상태를 지칭한다.(신묘함) 우리 앞에 예측불가능하게 다가오는 대상의 특수성에 따라서 잘 감응하는 그런 능력, 둘 사이에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神이라고 부른다.

▲ 자연적 결, 천리

장자에게 천리는 어떤 존재가, 신체가 드러내는 질료들의 흐름이 드러내는 결이다. 천(天)은

하늘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것과 대비되는 자연적인 것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천리는 자연적인 결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존재든 그런 결을 가지고 있는데 장자는 어떤 존재와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일단 그 결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한다. 천리를 이해하고 그 결에 맞게 나를 변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두께가 없는 칼

두께가 없는 칼은 포정의 자아를 비유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칼이 두께가 없다고 하는 것은 포정에게 자기의식이라든가 자기 기준, 선입견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심(成心), 이미 굳어져서 고정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8강 - 양생주① : 소 잡는 데에서 사는 법을 배우다

(2교시)

◆ 예와 언어, 노동

※ 학습목표

장자에게 만남과 소통의 수단은 어떤 것인지 다른 사상가들과 비교하며 알아본다.

▲ 소 잡는 데에서 사는 법을 배우다

우리는 대상이 내가 가진 목적을 충족시켜줄 때, 또 나에게 이득이 될 때 그 만남이 성공적이라고 한다. 대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을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상대의 결을 무시하고 대상을 내 목적에 맞게 폭력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파괴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자는 그렇게 하면 결국 칼날의 이가 나가버리듯이 결국 자기 자신이 지치고 소모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문혜군은 포정의 이야기를 듣고 ‘훌륭하도다! 나는 포정의 말을 듣고, 양생(養生)에 대해 터득하였노라!’라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기술자인 포정에게 양생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장자에게 생(生)은 수많은 마주침이다. 생명을 개체의 통일성이 잘 유지되는 차원에서만 생각하게 되면 자기 보전이 양생의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타인과의 관계들이 나의 삶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장자에게 중요한 문제는 매 순간 내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대상들과 어떻게 하면 조화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 예(禮)를 중요시한 유교

유교적인 전통에서도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은 인간끼리의 만남이다. 공자는 ‘사람은 새나 짐승과는 함께 살 수 없다. 내가 사람들의 무리와 더불어 살지 않고 누구와 더불어 살겠느냐?’라고 『논어』에서 말한다. 공자에게 소, 그것도 죽어서 물질에 가까운 소를 해체하는 것을 통해 삶과 만남의 기술을 터득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발상일 것이다. 공자는 인간관계에만 관심이 있었고 인간은 예(禮)를 통해 인간관계를 조직화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봤다.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조직화하는 것이다. 그때의 수단은 언어다. 신체적으로 예(禮)가 수행되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신체 자체가 고도의 제약성을 가지는 언어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데 신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예를 표현한다고 해버리면 사실 그 때 신체는 어떤 자연적이고 어떤 물리적인 신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신체 자체가 고도의 제약성을 갖는 언어가 되어 버린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특권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언어가 중요한 소통수단이 되는 것이다.

▲ 인간의 세 가지 조건 - 한나 아렌트

아렌트의 활동적 삶의 세 가지 근본 양태

1. 노동 - 생물학적 생명유지를 위한 활동 (인간만의 특권 아님)
2. 작업 - 자연적인 물질, 질료(matter)로 인간에게 의미 있는 사물(thing)을 만들
3. 행위 - 자연적 사물들을 매개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만이 갖는 수단인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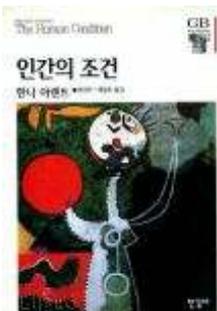
아렌트가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정치적인 활동이다. 행위는 한 명의 인간으로는 안 된다. 복수의 인간들이 만나서 언어를 매개로 하여 공적 담론을 만들고 인간의 사회, 정치적 조직체를 어떻게 건설하고 보전시킬 것인지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이 행위다.

■참고자료



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사상가
아렌트 [Hanna Arendt, 1906.10.14 ~ 1975.12.4]

■참고자료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 언어를 넘어서는 소통

아렌트는 행위의 모델을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찾는다. 폴리스의 자유 시민들은 아고라에 모여 말로써 사회를 들었다 놔다 하던 사람들이다. 공자나 장자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는 역시 수많은 사상들이 자기의 말하는 능력, 언어적인 테크닉을 통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장에 대거 참여했던 시대다. 그런데 장자는 이 공적 담론의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렌트처럼 언어라고 하는 특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가 소모적인 시비 논쟁

을 불러일으키며 소통 불능의 현실을 가져온다고 봤다. 그래서 장자는 언어적인 수단, 그 이상을 생각한다. 『장자』에 보면 백정이나 목수, 매미를 잡는 사람 등 특이한 등장인물들이 나온다. 자기 분야에서 귀신같은 솜씨를 자랑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아렌트가 폄하했던 자연적 대상이나 자연의 물질적인 질료들과 관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장자의 관심은 행위보다 노동, 작업에 있는 것이다.